

20년 「도시-농촌 상생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사업」 개요

1. 사업목적

- 도시-농촌 상호 또는 공동의 문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
 - 도시와 농촌의 위기 극복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공동체 간 상생협력 추구
 - 도시의 회복력 있는 대안의 삶과 구조 지향
 - 농촌자원의 융 복합과 네트워킹을 통한 행복가치 추구

-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동체 간 상생협력 및 호혜적 관계 구축
 - 공동체 주도의 순환과 공생의 내발적 발전전략 추진으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활력 증진
 - 상생공동체 문화 확산 및 사회변화 기대
 - 3년간의 사업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

2. 사업개요

- 추진근거 :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(도농교류법) 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

- 사업기간 : 2020년 4월~11월(8개월)

- 지원내용 : 도-농 상생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, 교통비, 교육강사비 등 지원

- 소요예산 : 6천8백만원
 - 서울시 자치구 공동체 2개, 농촌지역 시·군 공동체 2개 선정 및 지원(2개 매칭공동체 각 1천만원)
 - 2019년 도-농 상생공동체를 추진했던 8개 매칭공동체 연속지원(1기 : 500만원, 2기 : 700만원)

- 지원대상
 - 도시공동체 : 서울시 자치구 공동체(프로그램 운영에 최소 20명 이상 조직 가능 공동체)
 - 농촌공동체 : 지역 시·군 공동체(프로그램 운영에 최소 20명 이상 조직 가능 공동체)
 - ※ 서울 자치구 중간지원조직+자치구 공동체, 농촌지역 시·군 중간지원조직+농촌공동체 협력 체계 구성 필수

□ 사업추진방안

- 서울시 자치구 공동체와 농촌공동체 간 상호 매칭('20년 총 2개 공동체 매칭)
 - 서울시 2개 자치구 공동체+농촌지역 2개 공동체 매칭(도시-농촌 1:1 매칭)
- 2019년 사업에 참여했던 1기('18년 매칭), 2기('19년 매칭) 연속공동체
 - 2018년 매칭공동체 4개, 2019년 매칭공동체 4개
- 서울시 자치구 공동체와 농촌공동체 간 상생교류사업 추진
 - 각 매칭공동체가 희망하는 교류사업

〈사업추진방안 설명〉

- ▷ 신규 도시-농촌 공동체 매칭 방안
 - 공동체 간 자율매칭 원칙
 - :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율 매칭된 2개 자치구 공동체 및 농촌공동체 선정
 - : 선정된 공동체 간 자율매칭(공동체 워크숍 시)
 - : 자율매칭이 어려울 경우 사업단, 자치구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협의로 매칭
- ▷ 연속 도시-농촌 공동체
 - 2019년 사업을 진행한 매칭공동체간 연속교류
 - : 선정위원회를 거쳐 8개 자치구 공동체 및 농촌공동체 연속 여부결정
 - : 연속사업이 어려울 경우 사업단, 자치구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협의
- ▷ 상생교류사업 : 공동체 자율 기획 및 추진(공동체 지원사업비 활용)
 - 서울 자치구 공동체와 농촌공동체가 협의하여 제안하는 사업
 - : 교류사업 6가지 유형 중 택2, 상호 아이디어를 모아서 사업 추진
 - : 교류회 진행 시 일손교류 포함
- ▷ 서울시 자치구는 동 또는 마을단위, 농촌 지역은 읍면 또는 마을단위를 기본으로 하되, 역량과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범위를 자치구 전체와 시군 전체로 수행할 수 있음(예 : 농산물 직거래는 자치구 전체, 방문 교류 사업은 동 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시행 등)
- ▷ 지역상생코디네이터 : 각 지역별 지역상생 전문 활동가 양성
 - 각 지역별 지역상생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사업의 주요간사로 활동
 - 월 30시간 활동비 지급(서울시 자치구 공동체 지역상생코디네이터에 한함)
- ▷ 협력기관 역할
 - 공동체 선정 심사 및 심의(행정, 사업단)
 - 공동체 간 상생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지원(사업단, 자치구, 지역 시군 중간지원조직)